

#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막 올라...건강한 내일 설계

### 오는 26일까지 안양면...현대인 질병 해결 노력



2017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지난 20일 막을 올리고 7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장흥통합의료병원과 함께하는 올해 박람회는 안양면 국제통합의학 박람회장에서 ‘대한민국 통합의학 1번지, 장흥의 새로운 비전 제시를 목표로 26일까지 진행된다.

20일 오후 열린 개막식에는 배일호, 우연이, 강민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과 개막 퍼포먼스 박람회 주제영상 시청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올해 박람회장은 통합의학 관련

다양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6개 전시관과 7개 부대행사장으로 구성됐다.

전시관은 ▲현대의학 통합의학관 ▲한의학 통합의학관 ▲보완대체 통합의학관 ▲건강 100세관 ▲꿈나무 건강증진관 ▲의료산업/장흥 특산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현대의학 통합의학관은 14개의 분야별 현대의학 기반 통합의학병원 체험과 홍보부스로 구성됐다.

한의학 통합의학관에서는 한의학 중의화 등 8개 병원의 진료체험이 실시되고, 보완대체의학관에서는

척추경락, 수기, 흉재 검사, 피부관리, 향기요법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완대체의학을 선보인다.

건강 100세관은 22개 시군 보건소에서 보건사업 홍보와 체험장을 운영하고, 의료산업관에서는 통합의학 관련 기업제품의 전시·판매가 이뤄진다.

박람회 기간 동안 컨벤션홀과 힐링공연 무대에서는 건강강좌와 운동 프로그램, 어울림마당이 연이어 준비돼 있다.

약초테마공원 야외무대에서는 장흥 예술인과 단체에서 매일 3회 공연을 펼치고 고구려대 약초 전시관도 운영된다.

각 전시관에서는 현대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질병을 통합의학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고 건강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소개와 체험이 이루어진다.

장흥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통합의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의학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박람회는 통합의학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개인의 건강까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분들이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삶이 한층 건강해지는 계기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 무안군 망운면, 특색사업으로 ‘사랑봉사단’ 활동

### 독거노인 가정 방문해 청소 등 봉사활동 펼쳐



무안군 망운면(면장 박종화)은 지난 19일 목서리에서 기관사회단체 및 공직자로 구성된 ‘망운면 사랑봉사단’이 무안군 1읍면 1특색사업 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목서마을에 거주하

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집안 정리 및 청소, 쓰레기 수거, 밀반찬 배달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박종화 망운면장은 “비싼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망운면 번영회 및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박귀택 망운면 번영회장은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망운면 사랑봉사단은 관내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해 지역의 소외계층에 청소, 외벽 페인트칠, 방충망 수리, 밀반찬 배달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여수시 ‘낭만기득 여수의 가을밤으로 초대합니다’

여수시가 가을 여행주간인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여수의 가을밤으로 관광객들을 초대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가을 여행주간은 ‘가을밤 여행’을 주제로 다양한 고객 맞춤형 관광 상품이 운영된다.

대표 프로그램은 ‘이야기가 있는 여수밤바다 가을 달빛 산책 투어’다. 달빛 투어는 여행주간 기간 금·토요일 오후 7시 이순신광장에서 출발한다. 참여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스토리가 있는 여수의 밤을 즐길 수 있다.

지난 8월 운영 이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여수 낭만버스-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도 이순신광장에서 금·토요일 오후 7시30분 운영을 시작한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시티투어와 공연, 버스킹, 이벤트가 접목된 여수만의 관광 상품이다.

2017 여수 마칭페스티벌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관광객들에게 여수의 흥겨움을 선사한다. 이순신광장에서 거리퍼레이드, 마칭쇼, 관악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달빛 투어에 참여한 후 후기나 인증사진을 여수관광문화 홈페이지(<http://tour.yeosu.go.kr>)에 올리면 선정절차를 거쳐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달빛 투어 중 ‘축제스텝 앱(APP)’을 이용해 3곳 이상의 여수관광지 스탬프를 받아도 선물이 지급된다.

여수=송기홍 기자



## 진도군, 2017 농사 종합평가회 개최

### 시범사업 농가·공무원 등 100여명 참석 결과 평가분석

진도군이 2017년 농사 종합 평가회를 개최했다.

20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시범사업 농가, 농업관련 단체,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올농사 종합 평가회를 열었다.

이날 평가회는 올해 식량·소득작물의 새기술 시범 사업과 발전기술개발 실증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 분석했다.

평가회는 시범 사업 현장을 방문한 후 재배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해 현장 문제점의 신속한 해결로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특수기 시범단지 현장에서 진도군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흑미 품종의 특성을 비교 평가해 2018년도 재배품종 선택과 종자 증식으로 우량품종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해 고품질의 흑미쌀을 생산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종합 평가회 평가결과와 도출된 올농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통해 중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청정해역 여수 수산물, 음식경연대회로 맛 뵈낸다

### 27일 여수박람회장서 개최...20개 팀 참가

청정해역 여수바다에서 자란 싱싱한 해산물을 재료로 하는 ‘전국 여수 수산물 음식경연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전국 20개 팀 37명이 여수 수산물을 재료로 요리를 하며 열띤 경쟁을 펼친다.

여수 수산물 음식경연대회는 바지락, 새고막, 피고막, 홍합, 새우 등 여수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재료로 음식경연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출신을 제외한 대한민국 식품명

인, 전남 음식명인, 무형문화재 남도의례음식장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위원들은 요리의 맛은 물론 청결, 조리과정의 전문성, 배열, 표현성, 장식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대상 1팀은 200만원, 최우수상 1팀은 100만원, 우수상 1팀은 60만원, 장려상 2팀은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여수=송기홍 기자

지역공동미디어창조·정편식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